

다시 뜨는 세월호...북적이는 팽목항

‘靑 7시간 의혹’에 국민 관심 주말·휴일 방문객 3배 늘어 세월호 참사 영화로 제작 ‘세월호’ 내년 재전시 추진

가슴이 먹먹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젠 싸울 거라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 거라고. 팽목항을 찾아 서울에서 온 사형제도, LA에서 온 크리스 송씨도, 서연엄마도 모두가 굳게 결심했다.

4일 찾은 진도 팽목항은 싸늘했다. 찬바람이 거셌다. 철제 난간에 묶인 노란리본들이 거세게 울부짖었고, 방파제엔 타일 4656장에 새겨진 ‘기억의 벽’이 세워졌다. 여기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죄책감, ‘너무한다’는 원망, ‘붉은, 죽었다’는 절망, ‘너무 보고 싶다’는 그리움, ‘하늘에선 행복하리’는 바람이 담겨 있다. 그리고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당장 부패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세월을 구해야 한다’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다.

반대편엔 ‘18살에 떠난 수학여행 20살이 되어서도 못하고 있다’, ‘10번째 계절엔 은하야, 엄마랑 만나자...꼭!’, ‘아들이 이제 그만 집에 가지’라는 현수막이 추모객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사진과 이름이 내걸린 현수막들이다. 중간에 축구를 좋아하는 영인이의 축구화가 걸려있어 가슴이 미어진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진도 팽목항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가족은



2년8개월이 다 돼가지만 세월호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수습 희생자가 아직도 9명이나 남아있고, 선체는 여전히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다. ‘세월호 7시간’도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진실은 인양된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팽목항에는 이전보다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2~3배가량 늘었다. /진도 팽목항=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 친척의 결혼식에 왔다가 그대로 버스를 팽목항으로 돌려 온 가족이 추모에 동참했다. 결혼기념일에 맞춰 팽목항에 온 부부도 있었고, 친목계원들이 단체로 이곳을 찾기도 했다.

추모객들의 발걸음은 ‘춧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예전에 비해 평일엔 2배, 주말·휴일 3배가량 크게 늘었다.

동생 재근씨와 조카 혁규군을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 권오복(61)씨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팽목항을 방문하는 이들이 2~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권씨는 “세월호 속에 아직도 9명의 가족이 있다”며 “유실

않은 온전한 인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장편영화, 미술작품 전시도 추진되고 있다.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호’를 연출한 오명 감독과 김탁환 작가가 손잡고 세월호 참사를 다룬 장편영화 ‘바다 호랑이’(가제)를 영화로 만든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등은 제작됐으나 장편 상업영화로 제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탁환 작가가 지난 7월 펴낸 세월호 민간조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거짓말이다’가 영화화의 원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해 전사가 무산됐던 홍성담 화백의 걸개그림 ‘세월호일’의

재전시도 추진된다. ‘세월호일’ 재전시는 세월호 참사 3주기(4월 16일)를 맞아 내년 4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일’은 지난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기념전에서 홍 화백을 비롯한 작가 60여명이 가로 10.5m, 세로 2.5m 크기로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과 대인시장에서 주먹밥을 나눠주던 오월 어머니가 세월호를 힘차게 들어 올리는 장면을 그렸다. 그림 좌측에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허수아비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하는 모습을 그려 논란이 일었다.

진도 팽목항=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6 해질 17:20 달돋이 11:29 달질 22:31

밤부터 기온 폭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5/14	보성	맑음	2/14
목포	맑음	8/14	순천	맑음	5/16
여수	맑음	8/15	영광	맑음	4/13
나주	맑음	3/14	진도	맑음	7/15
완도	맑음	7/15	전주	맑음	6/14
구례	맑음	3/14	군산	맑음	6/13
강진	맑음	8/15	남원	맑음	4/12
해남	맑음	3/15	축산도	맑음	10/13
장성	맑음	3/13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서~북서	0.5~1.0	서~북서	2.0~3.0
남해	남해	서~북서	0.5~1.5	서~북서	2.0~4.0
남해	남해	서~북서	0.5	서~북서	1.0~2.0
남해	남해	서~북서	0.5~1.5	서~북서	1.5~2.5
남해	남해	서~북서	1.0~1.5	서~북서	1.5~3.0

생활지수

보통	보통
니출중	보통
감기	관심
체감온도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31	05:17
여수 <td>23:15</td> <td>17:56</td>	23:15	17:56
	05:53	12:33
	18:51	--:--

주간 날씨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	☁	☁	☁	☁	☁	☁
2/8	-1/10	0/8	1/10	0/9	-1/8	0/9

신안 해상서 중국 어선 12척 나포

서해해경 “폭력·저항 없어”
잡힌 기항허용06587호(101t) 등 2척은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망목 규정을 어기거나 조업일지 미비지, 어획량 축소 기재 등 EEZ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12척을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소사어08777호(149t) 등 5척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58km 해상(EEZ 내측 18km)에서 그물코 크기가 50mm 이하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더 작은 그물코(40mm)의 그물을 사용한 혐의다. 같은 곳에서 붙

광복회 국경교과서 폐기 촉구 특강

광주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 수업료는 비특성화고 110만4000~134만8800만원, 특성화고 59만4000~130만9200원, 방송통신고 13만5600원이다.

입학금은 특성화고 1만4800~1만7200원이며, 비특성화고는 올해부터 면제해주고 있다. 광주 공·사립 고교의 수업료는 2009년부터 9년째, 입학금은 2003년부터 15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추모·안전 교육의 場으로

郡, 안전파크 조성 밀그림...추모관·교육관·숙박시설 건립

내년 7~8월 착공...건립 예산 미확보·운영비 부담 추체 논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도 팽목항 인근에 들어서는 국민해양안전관의 밀그림이 나왔다.

진도군은 국민해양안전관과 그 일대를 국민해양안전파크로 조성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한다는 목표로, 조성 이후 연간 5만4750명이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비 수습역원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해양수산부가 전남도와 진도군에 떠넘긴 연간 25억원의 운영비 문제<광주일

보 4월21일자 6면>가 해결되지 않아 건립 지연과 운영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끝내고 이달 중에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내년 4~6월께 실시설계 공모를 진행, 내년 7~8월께 착공한다는 목표다. 모두 2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립해양안전관은 오는 2018년까지 팽목항에



조감도

서 500여m 거리에 있는 임회면 남동리 산 90번지 일원(10만㎡)에 조성될 예정이다. 국립해양안전관(지하 1층, 지상 2층)은 해양 환경, 활동, 재난, 응급상황에 대한 이론과 체험을 아우르는 전시와 교육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공간과 방문객 쉼터를 갖춘 해양안전공

원, 선박탈출 및 구명보트 체험과 같은 해양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실외해양안전체험시설도 국립해양안전파크에 들어선다. 이 밖에도 150~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진도 앞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도 함께 만들어진다.

하지만 전남도와 진도군이 요청한 내년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94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건립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20억~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국립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사업시행주체인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전남도와 진도군에 운영비 부담을 떠넘겨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경민기자 kki@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열뜸기, 아류뜸,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y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8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